

곡성멜론 출하 소비자 입맛 잡는다

곡성군은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멜론이 지난 9일부터 출하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곡성멜론은 매년 전국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지역 대표 작물로, 올해도 탁월한 당도와 품질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멜론은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토양과 일조량, 큰 일교차 등 멜론 재배에 최적화된 지리적 환경 덕분에 곡성멜론은 자연스럽게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육묘부터 수확, 선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더해져 고품질 생산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 현재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는 280여명에 달하며, 총 116ha의 재배면적을 확보해 곡성의 대표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곡성군은 곡성멜론을 ‘명품 브랜드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공동선별을 위한 포장재 구입비, 유통·물류비, 농수산물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수출물류비 대체지원 등 재배농가와 유통 기반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곡성멜론 곡성군 제공

뛰어난 당도·고품질 전국서 인기 토양·일조량·일교차 등 재배 최적 육묘~수확까지 관리 시스템 구축

곡성군은 기존의 명품 브랜드를 넘어 ‘K-곡성멜론’으로 해외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 총 72톤, 17만 달러 규모의 멜론을 수출하며 곡성멜론의 우수성을 세

계에 알렸다.

곡성군은 곡성멜론은 이번 출하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본격적인 수확과 판매에 나선다.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곡성멜론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시군구연구산업 육성 협업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시군구 연구산업은 지자체의 특화분야 중소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곡성군은 멜론 등을 활용한 농식품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년동안 국비 15억원을 지원받는다. 또 행정안전부, 법무부 협업 예산을 활용해 스마트팜 지원, 청년 창업·창농생태계 구축, 외국인 고용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멜론은 단순한 과일을 넘어 지역 농업의 경쟁력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작물이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류성 기자

보성군, 말레이시아 사바주 상호 협력 구체화

한국차박물관 차문화 교류 전시회

보성군은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와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대표 축제인 카마탄축제 간 문화 교류를 기념해 오는 6월 1일까지 한국차박물관에서 말레이시아 차문화 교류 전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사바주의 역사 문화 예술은 물론, 원주민 전통의상, 생활 도구, 전통 악기, 차 도구, 사바의 대표 차 제품인 ‘사바차’까지 폭넓게 소개하며, 말레이시아 고유의 차 문화와 지역적 특색을 국내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전시장 내에는 사바주의 대표 축제인 카마탄 축제를 집중 조명하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 축제의 유래와 전통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됐다.

유기농 ‘보성 차’와 키나발루산 열대우림에서 재배된 ‘사바 차’의 공통점을 부각하며, 친환경 종이 소재로 전시 공간을 꾸며 환경과 전통이 공존하는 글로벌 전시로 주목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 공식 대표단은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보성을 방문해 다채로운 교류 일정을 소화했다. 대표단은 사바주 관광문화환경부 상임부차관 알레시아 시온(Alessia Sion), 말레이시아 관광청 서울사무소장 카밀라 하니 압둘 할림(Kamilia Hani Abdul Halim), 카마



보성군 한국차박물관에서 6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 차문화 교류 전시회가 열린다. 보성군 제공

탄축제위원회 의장 조안나 빈티 키팅안(Joanna Binti Kitingan), 전통공연단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성다향대축제 개막식, 전통공연, 교류 전시 개막식, 문화관광 간담회 등에 참여했다. 사바 전통공연단은 축제 현장에서 총 6회의 전통공연을 선보이며 이국적인 매력과 생동감을 더했고, 방문객들에게 사바주의 생생한 문화를 전했다.

사바주 관광청은 축제 기간, 사바주 관광홍보관을 운영해 사바차 시음 행사, 관광 기념품 증정 등으로 현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사바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교류는 지난해 보성산 말차가 말레이시아

아 쿠알라룸푸르의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공식 출시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차 문화 산업과 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한 상호 협력 모델을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보성군은 이날 말사바주에서 열리는 카마탄 축제에 ‘보성 홍보관’을 설치해 보성의 차 문화와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양 지역 간 지속가능한 교류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문화와 전통, 친환경 가치까지 공유하는 국제적 의미를 지닌 행사다”며 “보성과 사바주 간의 문화, 관광, 차 산업 분야에서의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담양군, 추경예산 311억 증액 편성

본예산 대비 5.9% 늘어 5576억

담양군은 지난 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담양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예산은 본예산 5,265억원보다 311억원(5.9%) 증가한 5,576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2억원(5.8%), 특별회계가 9억원(10.9%) 각각 증액됐다.

담양군은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초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항목으로는 △대전면 대치지구 뉴빌리지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6억원 △기초연금·노인일자리 지원 등 사

회복지 분야 54억원 △창업형 영농시설 및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 등 농업 분야 46억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33억원이 포함됐다.

△순환형 매립지 정비 등 환경 분야 12억원 △관방제림 생육환경 개선 등 문화·관광 분야 10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 7억원 △어르신 보행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질서·안전 분야 5억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분야 32억원이 반영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양=정일남 기자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능주고등학교와 화순군 농업 미래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농업기술센터-능주고, 미래 인력육성 협약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센터 세미나실에서 능주고등학교와 화순군 농업 미래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농촌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현장 중심의 교육 컨설팅을 통해 농업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임시 및 진학 관련 정보 공유 △교육 과정 및 커리큘럼 연계 △농심 함양으로 친농업적인 미래인재 양성 △자연·인간·농업·농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청소년의 리더십 함양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자원과 전문 인력을 적극 교류하며, 지역 기반의 실천적인 농업 교육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화순=이종백 기자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서 청춘마이크 음악회

순천시는 주암면 문성마을 서당골 공동체 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문성마을과 청마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공연은 예술인과 주민이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즐겼다. 주암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3개팀과 청춘마이크 예술

인 5개팀이 참여해 시낭송과 하모니카,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성북만 서당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을 직접 마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공연은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줬다”고 말했다.

최향숙 명장은 “앞으로도 문성마을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에 문화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담양군 대덕면 지사협, 카네이션 액자 전달

담양군 대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카네이션 캘리그라피 액자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손수 준비한 캘리그라피 액자와 함께 딸기주스와 다과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김태수 민간위원장과 나숙자 공공위원장이 직접 액자를 전달하며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더했다.

김태수 민간위원장은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보람된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장흥군, 아동복지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장흥군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된 아동복지유공 표창에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아동정책에 대한 공적 내용과 아동권리, 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에서 아동친화 환경 구축에 앞장선 8개 지자체에 수여됐으며, 전남에서는 장흥군이 선정됐다. 장흥군은 아동의 권리를 지역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확대해왔다.

김성 장흥군수는 “아동의 목소리가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아동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육현 기자



HJ한주이엔씨, 여수 화양면에 백미 110포 기탁

HJ한주이엔씨는 최근 여수 화양지구 비치콘도 가공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330만원 상당의 백미 110포를 화양면사무소에 기탁했다. 기부된 백미는 화양면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준영 HJ한주이엔씨 대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돼 따뜻한 화양면을 만들어 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화양지구 비치콘도는 HJ디오션리조트(주)가 주관하는 해양관광 숙박시설 건립 사업으로, 랜드마크로 설계된 인피니티 풀은 길이 206m로 세계 최장 규모다. 오는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여수 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